



[특별기획프로그램 북한여류시인들의시세계]

나의 이름과 운명지어진 여류시인, 황진이

최 진 이 | 전북한여류시인, 현재이화여대대학원연구원생

이 글에 황진이 얘기가 들어갈 계획은 아니었는데 모니터를 마주하는 순간 문득 튀어 나왔다. 황진이가 왜 갑자기 시의 영감처럼 나의 뱃속으로 슬쩍 비집고 들어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글의 첫머리에 그에 대해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이 순리라고 여겨진다.

나에게 주어진 이름, 한 걸음씩 시장작의 길로 접어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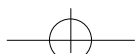
이쯤했으면 독자들은 눈치챌 것이다. 나의 이름이 그의 이름을 닮은 것에 대해... 한국전쟁 피해복구의 망치 소리가 거의 뜰해 갈 무렵 어느 가을 날 늦은 저녁, 평양시 만경대구역 봉수동의 한 단층 벽돌집에서 동태기름을 온몸에 가득히 뒤집어 쓴 한 여자가 아이가 어머니 자궁을 비집고 나와 첫 울음을 터뜨렸다. 딸을 낳았다는 산파의 말소리에 산모는 안도의 빛을 온 얼굴에 띄운다. 위로 아들만 넷이었으니 이번엔 여자애였으면 했는데 그 바람이 이루어진 것이다. 시중을 들던 산파도 돌아가고 산통도 거의 사라졌을 쯤, 산모는 빨간 피덩이 같은 얼굴이며 오리발 같은 주먹에 주름이 오골오골한 양장맞은 아기의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본다. 이 애 이름은 무엇이라고 지을까?

온 집안의 기대가 자신을 향해서 서히 밀려드는 것을 의식하며 입이 찌지게 하품을 해대는 아기의 얼굴을 산모는 다시 한번 유심히 지켜본다.

“이애는 관상을 보니 시인이 될 것 같구나, 유명한 여류시인 황진이의 이름을 따서 진이라고 지어 주자꾸나”

어머니는 아기가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자 동서고금의 문학작품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를 그애의 귀에 대고 하나하나 속삭인다. 바깥 거동이 점점 더 불편해져 가는 어머니에게 있어서 그 일은 하나의 업처럼 되어간다. 언젠가부터는 어머니의 이상속에 각색된 황진이의 모습이 딸의 뇌리 속에도 각인되어간다.

“옛날 어느 마을에 황진이를 사모하던 한 가난한 젊은이가 상사병에 걸려 죽게 되었구나, 그 청년의 시신이 담긴 관을 마을 사람들이 메고 산으로 나가는 데, 황진이의 집앞에 이르러 관이 땅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단다. 큰 난리가 났지. 집안에 있던 황진이는 대문앞에서 사람들이 웅성이자 웅성일인가 하여 심부름꾼 아이를 내보냈구나, 그애가 와서 머리를 수그린 채 아뢰었다. 뒷집 젊은이가 죽었는데 그가 황진이의 저고리를 자기 몸에 덮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황진이는 그 말을 듣자 입던 저고리 중 제일 새 것





을심부름꾼애의손에들려내보냈단다. 동네사람들이 그 저고리를 받아 죽은 사람의 몸 위에 덮어주니 그제야관이움직였단다”

집안 살림이 여덟 살 난 나와 아홉 살의 사촌오빠 손에 있다시피했던 그 외롭고 지겹던 나날, 내 귀 전에 들려오던 어머니의 이야기들은 점차 뜸해갔고 어머니가나의이름속에담아부풀려주었던시인의꿈은나와 인연 없는 것인 듯 나의 머리 속에서 아득해졌다. 어머니의죽음은어머니가나에게지어주었던 몽롱한 시인의 꿈마저 말끔히 거두어 가지고 가버린 듯했다. 나는나에게연속되는불행들이별로행복치 못한이름탓인듯도싶어져때로는지금의이름을바꿀생각까지했었다.

사람은 이름 따라 간다고 했단가…. 전혀 예측 못했던상황에서딱한어떤갈망도없이막연하게시작된내시창작의길이한걸음한걸음궤도에들어서기시작하자나는어머니가나에게지어준이름의뜻을잠깐씩음미해보는기회를갖곤하였다. 정말로어머니가본나의첫모습에서인될나의운명이그러져있었을까? 시 공부를 하면서 황진이의 시와 맞다들

때면 나는뭐라고 꼭 집어 표현할 수 없는묘한 기분을 느끼곤 하였다. 마치 인연 있는 사람의 시를 보는 듯한, 아니 내 운명이 예언되어 있는 어떤 지침서를 보는듯한….

내이름의사연

김형직사범대학 작가양성반을 졸업하고 금성청년출판사문학창작단작가로배치받았을때내이름의사연을 알게 된 원로 소설가들이 황진이의 일화들을 나에게 들려줄 때면, 그것이 마치 나에 대한 칭찬인 듯싶어져나는맘속으로그렇게흐뭇할수가없었다. 하여창작실에서작가들의개성시현지답사를조직했을때그답사계획에황진이묘참관도있다는사실을 알고 은밀히 좋은 술 한 병을 준비해 가지고 가기도 했었다. 아무래도 그의이름자와인연있는내가그의 묘앞에술한잔붓는것도리인듯해서였다. 나중에일정이뒤바뀌어황진이묘참관은취소되고내배낭속의술은유난히도애주가였던한소설가의애처로운 간청에 의해 한 잔씩 한 잔씩 비워져갔다. 하지만박연폭포에왔던황진이가푸른폭포수에먹을갈고어깨너머로휘늘어졌던머리태를썩벌잘라먹물에 적어떠오르는시흥을휘갈겨적어넣었다는그사연깊은바위에올랐을때, 나는두손을모아뜨뜻은폭포수를바람에흩날리는듯한그의시체(時體)앞에 숙연히 머리를 수그린 채, 글자 획과 획 들에 정중히 붓는 것으로서 그의 묘를 찾아 술 한잔 붓지 못한 자책감을어느정도달래일수가있었다. ‘개성3절이있는데그것이바로박연폭포와화담서경덕그리고황진이라고 자신을 스스로 개성 3절의 하나로 명명했던천하여결황진이의넋이그의입김처럼곳곳에서



1999년발행된문학시리즈우표중 ‘황진이’





[특별기획프로그램 북한여류시인들의시세계]

린 개성을 두고 떠나자니 누워있는 황진이의 자태를 닮았다는, 개성시내를 병풍처럼 둘러싸온 동남쪽 산마루는 내가 생각도 못했던 어떤 든든한 뜻을 떠나가는 나의 온몸에 은밀하게 포근하게 휘감아 주고 있는 듯싶었다.

나의 어머니가 황진이와 나 사이에 맺어준 인연은 좀처럼 끊어질 줄을 몰랐다. 북한을 탈출하여 낯설고 물선 타향에서 지치고 불안한 방랑생활을 끝도 없이 이어갈 때, 나는 내가 묵고 있는 집 책상 벽에 황진이의 이런 시를 흰 종이에 정자로 굵직하게 써서 붙여 놓았다.

‘ 잘 가 노라 담지 말고 / 못 가 노라 섰지 말고 / 견고 걸음 / 달는 것과 갓 도다 ’ 내가 힘을 얻고자 닦치는 대로 들여다 보던 글줄들에서 더는 원하는 바를 찾지 못할 때, 머리 속에 기억하고 있던 황진이의 시를 운율을 살려 써 붙여 놓은 것이었다. 그 시는 나의 말 없는 감시자가 되어 주었다. 하루의 일상에 지친 내가 야기를 잠재우고 까딱 잠들었다 가는 밤 12시, 1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양말 신은 발에 버선을 꺼 신고 동복을 입은 후 머리수건으로 머리를 뽀뽀 싸매고 양손에는 두툼한 장갑을 낀 채, 성에가 허영게 붙은 책상을 마주하고 마음속의 생각들을 한자한자 종이 위에 적어 나갈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황진이의 시에서 온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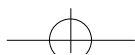
한국에 와서 이화여대 여성학과(석사과정)에 입학하자 첫 학기에 나는 다른 과목들과 함께 여성사강의를 수강했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일 궁금한 것이 북한에서 체계적으로 정립하지 못했던 신사임당, 허난설헌, 황진이들의 역사와 작품들을 전면적으로 분석과 약하는 것이었다. 그중에도 요점은 황진이었다. 왜냐하면 신사임당, 허난설헌과는 달리 황진이는 북

한에서 문서화된 것이 극히 적은(인민대학습당 특허 열람실에서만 보게 되어 있다) 까닭에 그에 대한 모든 것을 구전으로만 전해 들어온 이유였다. 나는 여성사 기말 리포트를 아예 그 주제로 잡았다. 그 과정에 신사임당, 허난설헌, 특히 황진이의 인간상과 작품에 대해 분명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그 덕에 또한 가치를 새롭게 알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 나라 역사에 길이 남을 이 걸출한 여성들이 활동한 조선 10대 왕인 연산군 때부터 14대 왕인 선조 말까지 근 백여 년간은 이 땅에 전쟁이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전쟁은 그 어떤 다른 것을 말하기에 앞서 인간의 지능을 억압하는 그 무엇이었다.

나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를 안 쓰는가 하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사실 탈북하는 그 순간부터 나의 시적 영감은 거짓말처럼 깡그리 말라버렸다. 나는 지금 소설창작을 계획하고 있고 그를 위한 성실한 축적을 해가고 있다. 가끔은 혹시 내가 황진이를 배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본다. 내 운명이 황진이를 기어이 따르도록 점찍어져 있는 것이라면 운명은 나를 다시금 시 창작의 길에 돌려세울 수도 있으리라, 아니 내가 쓸 소설 속에서의 녀를 붙여넣는 일도 황진이와의 인연을 살려 나가는 길이 될 수 있으리라, 어쨌든 나는 나의 어떤 운명에도 충실할 각오와 준비가 예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항상 되어 있을 뿐이다.

나의 특별한 영양소가 되어 준 여성시인들,
정천례 주옥양 김귀련 신진순

먼저 정천례를 말해야겠다. 내가 시를 쓰면서 제일 먼저 알게 된 여성시인인 까닭이다. 내가 시의 미련을 조금씩 터득해 나가기 시작하던 시기에 이르자





‘ 잘가노라탄지말고/ 못가노라섯지말고/ 견고걸음이/ 달는것과갓도다 ’

내가원하는바를 찾지 못할때, 머리 속에 기억하고 있던황진이의 시를 운율을살려
써붙여놓은것이였다. 그시는나의말없는감시자가되어주었다.

나의 큰오빠는 나에게 정천례의 시를 보라고 일러주었다. 그리고그의약력에대해서도간단히이야기해주었다. 함경도어느기계공장직공출신인데참시를 재간있게 쓴다고, 너처럼 시집가기를 거부하면서 기형적인 창작생활을 고집하는 여자가 아니라고, 어느 군관하고 평범한 결혼을 했다고, 마침 새로 출간된 『현대시문학선집』에 정천례의 시가 실려 있었다. ‘ 입당청원서를 쓰며 었다. 시상이 참신(물론 정치적인 맥락이긴 하지만)하고 시어가 독창적이였다. 특히 ‘ 당신은저에게배워주셨습니다/ 산나물씻는거며/ 칼도마에무채는어떻게써는가를 같은문구는여성인 나의 심중을 제일 먼저 적시였다. 그 외의 작품은 별로보지못했고별로눈을끌만한것이아니었는데, 차츰그의이름이나의기억속에서사라져가는데어느해인가큰오빠가나에게또외웠다. 정천례가가정생활을 충실히 하더니 20년여만에 좋은 시를 써냈다고, 자식을넷이나낳고행복한 가정생활도유지해가고 있다고, 오빠는 마치 그가 나의 시 창작생활의 본보기라도 되어야 하는 것처럼 거의 확정짓다시피 하여말했다. 나는그말을듣고그달조선문학에실린 정천례의 시를 찾아 읽었다. 시 제목은 딱히 생각이나지 않는데 내가 그 시를 읽고 느꼈던 깊은 인상은 시속에여성시인정천례의인생체험이풍부하면서도 그윽하게녹아있었다라는것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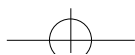
그후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최고기관지인월간

잡지 『조선문학』에정천례의 시는더 이상 실리지 않았다. 오빠의 정천례를 빗댄 나에 대한 훈계도 더 이상효력을발하지못했다.

다음으로 주옥양을 말하는 것이 옳을까, 내 나이 또래인데 그를 감히 선배들의 위치에 올려놓는 것이 마땅할까, 나는그가지녔던문학적실력보다는그의 실화가우리세대문학청년들에게끼쳤던영향력으로 보아그를이위치에올려놓는것이마땅하다는판단을내렸다.

한국에서도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름도 작품도몰랐던그를내가문득알게된것은잡지 『조선문학』에 실린 북한의 천재적 시인 김철의 실화를 읽고 나서였다. 아니그보다한발먼저작가동맹에서떠도는소문을듣고서였고그다음이김철의글을통해서였다.

실화 <어디서나 백두산에 오르리!>의 주인공 주옥양은 용성기계연합기업소 주물직장 선반공(?) 당시 나이는 22살(?) 그는열성문학통신원이였다. 그가유명해진것은아픈배를그려주고시를쓰다죽었기때문이었다. 그는집에서시를쓰던중충수염으로인한 진통이 시작되자 다리미를 뜨겁게 달궜 복부를 지저가며시를썼다고했다. 그러다졸도하여병원에실려갔는데 충수염 수술도중 그것도 배를 갈라놓은 상태에서수술실에정전이되었다고했다. 업친데뎌친격으로 그의 수술을 전혀 경험 없는 실습생들이 맡았





[특별기획프로그램 북한여류시인들의시세계]

다.(물론이런구체적사실까지는실화에밝혀지지않았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유명해져야 할 운명인듯했다.

이것은 주옥양에 대해 작가들과 문학통신원들 사이에 구두통신으로 떠도는 정보이고 김철의 실화는 그와 달랐다. 주옥양이 하루 2시간 잠자기를 구호로 내걸고투신해온문학수업과정과이른나이에원로작가들과의사이에쌓아온돈독한관계, 그의투철한문학정신, 작품창작세계등을시인의독특한감각적묘사를통해거의환상적으로형상해내고있었다. 주옥양이책빌리러오면작가들은자기딸에게도내놓지 않던 소중한 책장의 열쇠를 스스럼없이 꺼내주었고, 그가 평시 백두산을 얼마나 그리워했고 2월의 눈 덮힌 백두산을 어떤 정신과 의지를 발휘하여 다녀왔는가를, 내려와서어떤시를쓰던중운명했는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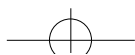
물론 이 글의 묘사대상은 문학통신원(자기 직업을 가지고현장에서일하며문학공부를시작한사람, 작가동맹중앙위원회에는 문학통신원지도부가 따로 있어전국의이런대상들을강그리장악하고년1회(한달)씩 정기적 창작강습체계를 통해 그들의 창작실력을제고시키고있다) 주옥양이었지만그글속에는발전소, 탄광, 광산광부 등 지옥 같은 혁명화 과정들을 거쳐 22년만에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작가동맹 중앙위원회시인으로재부상한, 천재시인김철의진한피가, 풀다 못해 닿는 사람 모두의 살을 데울듯 용광로 속의불길처럼펄펄일어번지고있었다.

김철의 실화는 발표되자마자 전국의 청년들을 폭풍처럼 휩쓸어버렸다. 실화를 읽은 청년들은 한동안 얼을잃은듯멍해했다. 그들은이윽고자신의인생관들을 두고 제 나름의 피 말리는 고민에 들어갔다. 도서관, 책방들에 비치된 책들 중 주옥양 실화가 실린

페이지는깜짝같이찢겨져누군가의손과손으로전해졌다. 젊은이들이있는가정과학교, 도서실과대학창가에서는 주옥양 실화에 자극을 받은 이들의 책장번지는소리가고요한밤공기를날마다소리없이진동시켰다. 고단하고기약없는 창작수업의아득한길을 허우적거리며 간신히 걸어내던 중인 23살의 나에게 있어서도 이 실화는 걷는 길이 설사 지금보다 더 험하고힘들다해도한십년쯤은끄떡하지않고감당해낼수있게하는불사의원동력이되어주었다.

곧문학통신원으로서전무후무한주옥양시집이 나오고 작가동맹에서는 주옥양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문학통신원들을 대상으로 한 『6월 4일 문학상』을 새롭게 제정하도록 안을 작성하여 김정일의 방침을 받는데성공했다. 6월4일은김정일이작가동맹에서올린 주옥양 일화에 대한 보고를 받고 문학통신원들의 역할을 높힐 데 대해 ‘말씀을 준 날이다. 그리고 『6월4일문학상』은전국의문학통신원작품들중가장 우수한 작품을 오직 1편씩 부문(소설, 시, 아동문학, 희곡)별로해마다뽑아표창과상금, 메달을수여하도록 하는 상이다. 이상의 제 1차 시부문 수상자로 바로주옥양이추천된것이었다.

당시나와함께문학수업을하고있던동료들은말했다.“주옥양이죽었으니주옥양이지살았다면주옥양이아니었다”고, 즉주옥양의문학실력이며문학세계등모든것이김철시인이형상한높이에만큼이르러 있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그 말을 부인할 수 없는 점의하나가주옥양시집에실린시들중김철의실화에언급된시(김철시인의전면적수정이가해진)들을 제외하고는문학작품으로서가치있는시를찾기가힘들다는사실이였다. 그로부터수년이 지나서나는 주옥양시집에실렸던주옥양일기들을어느여자소설가





내운명이황진이를기어이따르도록점찍어져있는것이라면내가쓸소설속에서의
 녀를불어넣는일도황진이와의인연을살려나가는길이될수있으리라, 어쨌든나는
 나의어떤운명에도충실할각오와준비가지금도항상되어있을뿐이다.

자신이말아쫓았었다는산증언을들었다. 즉북한작가 동맹은자신의입지를확고히하기위해문학신인영웅주옥양을새롭게창조해낸것이였다. 죽은자에게는영광이되고산자에게는추동력이된셈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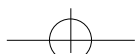
다음은 이 글의 서두에서 언급한 시인 김귀련, 나는그를그의개인시집「장미꽃피는집」을읽고서알게되였다. 시집의제목이암시하는바와같이서정시<장미꽃피는집>이그시집의대표작이였다. 그시의내용은 이러하다. 서정시의 주인공이 아침마다 장미꽃화분이놓여있는집을보면서직장을출근한다. 어떤 날 아침엔 그 집 남편인듯한 사람이 화분에 물을 주고 있다. 다음 날은 아내의 얼굴이 화분 위에 숙여져 있고, 다른 날은 부부의 모습이 화분사이에 함께 비껴 있다. 시인은 그들이 왜인지 부럽게 여겨진다. 화분에장미꽃이피어있는저집에는늘웃음꽃만피어날듯싶다. 그들은직장에나가서도틀림없이혁신자로 손꼽이우리라, 그래서 그 집은 보고 봐도 또 보고 싶다. 그 이유 하나로 시인은 암만 바빠도 아침이면늘장미꽃피는집앞을지나일터로간다.

나는 이 시를 읽으면서 시의 소재의 참신성, 형상의진실성에거의탄성이나올 지경이였다. 지금까지 시를써온여류시인들의시들을보면이데올로기적인 사고가뒷전에밀려진시는거의없었다. 좋다는시들전부가 국가에서 요구하는 틀에 얽매어 소재적 발상을 하고 초인간적으로 과장된 형상을 해나가는 것이

였다. 나는이런관점에서그들을시인으로여기지않았다. 모르겠다. 내가 정치적 센수가 없어 그들의 나와는 또 다른 어떤 능력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무튼나는문학은철저히인간의생활을진실하게 반영해야 하고 그것만이 영원한 생명력을 가질수있다는진리를문학수업의원초적규범으로배우고깨달으며자랐다.

김귀련의 시집에는<장미꽃 피는 집>의 급에 이른 수준작들이 여러 편 들어 있었다. 조금 질이 낮다고 하는시들도서정시의초보적특성은원만히갖춘시들이었다. 내가 시집을 보고 느낀 감동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표현을 하자 함께 문학수업을 하던 동료들이 김귀련에 대해 알고 있는 일화들을 하나하나 이야기 해주었다. 러시아어에 아주 능했고시적재능이특출한분이였다는것, 당대북한시단에서최고지성파로 꼽히던시인김상오와드라마틱한관계였다는것, 차림새가 하도 화려하고 현대적이어서 일반 여성들은그처럼 입을 엄두조차 못 냈다는 것, 어느 해인가 북조선작가동맹 대표로 러시아를 방문하던 중 구면인 러시아친구에게“ 북한에서전쟁이일어나면나는곧 러시아에 넘어오겠으니 그때 과수원이 달린 집이나 한채마련해달라”고한말이화근이되어귀국하자마자쥐도새도모르게없어졌다는것등이였다.

참재능 있고 담도있었던 분이었던 듯 싶은데, 화를당했다는느낌이들었다. 어쨌든나는시인김귀련





[특별기획프로그램 북한여류시인들의시세계]

으로부터 여성적 시쓰기 방법을 최초로 터득한 건 아니었다 하는 생각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마당에 와서야 비로소 든다.

마지막으로 시인 신진순은 월북작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다. 몽양 여운형이 그의 천재성을 인정하고 지원하여 숙명여대(?)를 공부하도록 해준, 7개 외국어에 능통한 특이한 분이다. 김일성의 조국개선연설 때 꽃다발을 증정했고, 한때는 김일성에게 끝없이 매혹을 느꼈던 적도 있었다고 하고, 어쨌든 그는 북한의 산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의 전설적인 분이다. 초기에는 시작품을 썼었는데 나는 웬지 그 분의 시에서 김귀련 시에서 얻은 것과 같은 그런 매력을 마지막까지 느끼지 못했다. 아마도 창작 능력과 어학 능력이 따로 있다 함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닌지...

그렇다고 그 분의 가치가 절하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서독의 여류 소설가 루이저린저가 북한을 방문하여 신진순을 만났는데 그의 박식함과 논리의 정교함에 감탄한 나머지 이런 고백을 그 앞에 했다고 한다.

“내가 한국 작가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작가들도 가서 만나 보겠다고 하니 그들이 하는 말이 만나야 소용없다, 북한 작가들은 전부 강통이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마 그런가 보다 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와 보니 그들이 완전한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루이저린저가 신진순을 북한 작가들의 일반적 전형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오해이다. 적어도 외국어 측면에서 그를 당할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북한 작가들 중에 없으니 말이다. 그러나 북한 작가들은 전부 강통이라고 한 발언도 문제가 있다. 물론 전반적 작가들이 지식을 공유할 수 없는 특수 환경에 젖어 있다 보니 ‘전부가 강통이다’는 말도 논리가 전혀 없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런 속에서도 작가적 양심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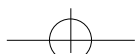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야기가가 지가 다른 곳으로 뺄 듯 싶다.

신진순이 여성 외국어 번역 소설 작가에게 한 또 하나의 유명한 말이 있다. “외국어를 쓰지 않으니 급격하게 잊혀진다. 먼저 잊혀지는 것이 제일 나이 먹어서 배운 언어 순이다. 서너 개 나라 말은 기억에서 완전히 잊혀졌고 지금은 세 나라 말 밖에 하지 못하겠다” 고

평양에서 백길로 미터쯤 떨어진 남포 우산장에 작가들의 창작 휴양소가 있다. 작가 동맹 산하 전국의 작가들이 모여서 전문 창작을 하는 곳이다. 그곳은 양옆 뒤가 송림으로 둘러싸여 있고 앞에는 커다란 호수가 있고, 휴양소 경치치고 그만한 곳은 더 꼽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싶다.

신진순 선생이 그곳에 가서 창작을 하시던 어느 해 여름이었다. 우산장 뒷산에 이름 모를 버섯이 구름처럼 가는 곳마다 솟아났는데 작가들 중 어느 누구도 버섯에 호기심을 느끼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들 그러다 독버섯이면 어쩌랴 하는 의구심으로 선뜻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신진순 선생이 아무래도 먹지는 버섯 같아 보인다고 버섯을 채취하여 인편을 통해 식물원 연구소에 감별을 요청했다. 식물원 연구소에서 곧 그 버섯의 이름은 ‘보라버섯’이며 인체에 아주 좋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다는 답장을 구체적인 그 식용 방법까지 곁들여서 보내왔다.

작가들은 그때부터 창작을 하다 설참이면 너도나도 산에 올라 보라버섯을 뜯었다. 평양에서 온 작가들은 집으로 돌아갈 때 우산장 특산물로 말린 보라버섯을 가져가 찬거리 구하기 바쁜 아내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우산장에 있을 때는 싱싱한 것들을 뜯어 다 끓여도 먹고 고추장에 찍어 먹기도 하는데 소금만 넣고 끓여도 그 맛이고 기미가 상이었다. 작가 동맹 부위원장





고단하고 기약 없는 창작수업의 아득한 길을 허우적거리며 간신히 걸어내던 중인 23살의 나에게 있어서도 주옥양실화는 걷는 길이 설사 지금보다 더 험하고 힘들다 해도 한 십년쯤은 끄떡하지 않고 감당해 낼 수 있게 하는 불사의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

이며 여류시인인 신진순에 의해 발견된 우산장의 특산물인 보라버섯은 최근에 와서 배고픈 작가들의 식량대용역할을 톡톡히 하더니 그마저 동이 나가는 상태에 직면해 있다.

신진순은 시인으로서 전망이 별로 안보였던지 50대 이후부터 소설 창작에로 이전했다. 첫 소설을 국가 심의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자 김일성 단독 접견시 그 사실을 일정에 올려 김일성으로부터 출판 허가를 받아

냈다. 작가 동맹에서도 어쩔 수 없어 그 의원고에 심의 통과도장을 찍어 주고 인쇄소에 넘겼다. 각별한 사연을 거쳐 그의 첫 장편 소설이 출판되긴 했으나 작가들과 독자들 속에서는 별로 인기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외에도 나의 시 창작에 영향을 준 몇 명의 여류 선배시인들이 더 있으나 생략하기로 한다.

◆◆ 공연, 전시, 출판, 문화예술관련 행사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월간「문화예술」과 「문예연감」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월간「문화예술」의 '문화예술정보시장'은 공연, 전시, 출판, 문화예술 행사를 실용정보로 소개하는 지면입니다.

문화예술정보시장에 실리는 내용은 문화예술단체(개인)에서 보내주시는 자료들로 꾸며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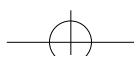
「문예연감」은 한해 동안 우리나라 문화예술계 활동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문예연감에 수록되는 분야별 문화예술 활동 상황은 문화예술단체(개인)에서 보내주시는 자료를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전시, 공연, 문화행사의 자료들은 본원 간행물 발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본원 간행물이 문화예술계 동향을 읽는데 부실함이 없도록 문화예술단체(개인)의 협조를 바랍니다.

- 보내주실 자료: 문화예술단체(개인)의 공연, 전시, 문화예술관련 행사의 보도 자료 및 사진
- 보내주실 곳: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편집실 월간「문화예술」, 「문예연감」 담당자 앞
- 주소: 종로구 동숭동 1-130 전화번호: 760-4568 FAX: 760-4694
- E-mail: magazine@kcaf.or.kr





지난 10월호 166p 구고사용

